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의 담화 기능*

문 순 덕[†]

김 원 보[‡]

국어문법에서 감탄사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탄사는 구어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발화되므로, 문법 의미보다는 담화 의미로 해석할 때 각 단어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에 감정 표현의 감탄사는 발화 상황에서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므로, 담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감정 감탄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인 ‘으따가라, 메께라, 메, 츠마가라’ 등을 대상으로 담화 의미를 살펴 보았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는 나무람, 비난, 책망, 대화중지, 대화거부, 부정 등의 담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의미들은 후행 발화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메께라’에는 강한 부정, 거부, 책망, 나무람, 비난, 못마땅함, 단정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메’는 강한 부정, 요구 거절의 담화 의미로 쓰인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츠마가라’에는 화자의 강한 부정, 거부, 책망, 단정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 메께라, 메, 츠마가라’ 등은 상대방의 행동을 나무랄 때, 화자의 맘에 들지 않을 때(흡족하지 않은 상태) 등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는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주요어 :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 으따, 메께라, 메, 츠마가라, 담화 의미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 5016).

† 주저자 : 문순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sena725@jri.re.kr

‡ 교신저자 : 김원보, 제주대학교 한영과 교수, kimwonbo@jeju.ac.kr

I. 서 론

국어문법에서 감탄사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로 구분된다.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는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 등 사람들의 오감각에 준하여 나타나고 의지 감탄사는 의지, 부름, 응답 등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때 선택된다.

감탄사는 구어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발화되므로, 문법 의미보다는 담화 의미로 접근할 때 각 단어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감탄사의 분류에 대한 이견(異見)과 담화 의미로 해석하려는 논의들이 있었다. 이에 감정 표현 감탄사의 문법 기능과 담화 기능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감탄사는 학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데 최현배(1971)에서는 감정적 느낌씨와 의지적 느낌씨로 구분하였다. 이 이론이 국어문법의 모범으로 알려졌으며 남기심·고영근(1983)에서는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로 용어를 달리한 정도이며, 개념 정의는 최현배(1971)과 유사하다.

서정수(2006:1363)에서는 감탄사란 놀람이나 기쁨 등 사람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감정 감탄사와 의지를 드러내는 감탄사를 간투사로 구분하였다. 오승신(1994)에서는 감탄사를 품사라는 문법범주에 포함할 수 없고, 발화상에서 음성적인 형태까지 지칭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간투사로 다루었다. 여기에는 감정 표현, 의지 표현, 입버릇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영옥(2012)에서는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과 머뭇거림 표현 등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분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탄사의 의지적·화용적 특징에 따라 하위 분류하였다. 즉 한국어 감탄사의 하위유형에는 드러냄(감정, 인지, 기원), 알림, 행동유발, 행동(부름, 응답), 기타 의도(입말, 군말) 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안주호(2012:99~100)에서는 감정 감탄사를 감정표시 기능으로, 의지 감탄사는 정보표시(의지, 형식 포함)의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다루었다. 즉 구어 말뭉치에서 사용되는 감탄사에서 유래된 고빈도 담화표지 {아, 어, 응, 음, 오, 네, 아니} 등을 사전적 의미 외에 담화표지로 확대하여 화용적 의미 기능을 다루었다.

서태룡(1999:45~46)에서는 감탄사란 “문장 성분과 통사론적 관계를 맺지 않고 담화 성분이나 담화 상황과 관계를 맺는다. 담화를 위한 단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현희(2015)에서는 감탄사를 해석할 때는 발화 상황 등 화맥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석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감탄사를 단순히 문법 기능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담화 기능으로 접근해야 함을 말해 준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구어 표현이 강한 감탄사를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감정 표현은 감탄사로 하고, 그 외는 간투사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었다. 또한 여러 국어사전에 감탄사로 등록된 단어들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담화상에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 다루는 경향도 있다.

한편 제주방언에서는 의지 감탄사인 의지, 응답, 부름 등을 간투 표현으로 다룬 글은 있는데(문순덕, 2005), 감정 감탄사의 담화 기능을 다룬 연구는 없는 편이다. 이에 국어문법의 감탄사 분류 기준에 따라 제주방언의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감정 감탄사의 담화 의미를 추출해 보겠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에는 ‘아, 아아, 아이고, 어마넉들라, 어마뎡어리, 아차, 아가, 아가기여, 아이고머니, 아이고명아, 아이카, 어떠불라’와 이 글의 논의 대상인 ‘으따가라, 메께라, 메, 츠마가라’ 등이 있다. 전자는 단순히 화자의 감정(기쁨, 놀람, 슬픔 등)을 표출하는 의미로 쓰인다. 후자는 청자의 발화에 대해 거부, 부정, 나무람, 비난, 책망, 대화중지, 대화 거부 등 화자의 감정이 좀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 메께라, 메, 츠마가라’ 등이 담화상에서 화자의 감정을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담화 기능을 살펴보겠다.

II. 감정 표현 감탄사의 담화 기능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발화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이때 화자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 감탄사가 쓰인다.

이에 감정 표현의 감탄사는 발화 상황에서 그 기능이 좀더 분명해지므로, 담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감정 감탄사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1. 감탄사 ‘으따가라’ 형의 담화 기능

제주방언 ‘으따가라’¹⁾는 표준어 ‘어따’에 대응된다.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는 상대방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빈정거리는 의미로 쓰이는데, 발화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살펴보겠다.

1)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인 ‘으따가라’ 형에는 ‘어따가라, 아따가라, 업다가라’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이 형태들이 쓰이는 환경에 변별력이 없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으따가라’를 대표형으로 정했다. 이 형태들은 표준어 ‘어따’에 대응된다. 한편 제주방언 ‘으따’ 형에 속하는 ‘어따, 아따, 업다’ 등이 임의적으로 교체되어 쓰인다. 제주방언 ‘으따’ 역시 표준어 ‘어따’에 대응된다. 그런데 제주방언 ‘어따’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부사로도 쓰인다.

- (1) (가a). 으따가라, 경 울지 말라.
(어따, 그렇게 울지 말라.)
(나a). 어떻 안 울어지쿠과?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가b). 계건 풀어질 때까지 실피 올던가?
(그러면 풀릴 때까지 실컷 올던가?)
(나b). 으따가라, 무사 경 약 올렸우과?
(어따, 왜 그렇게 약을 올리십니까?)

(1)에서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는 명령문과 의문문에서 자유롭게 발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그 동작을 멈추거나 자신의 감정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으따가라’는 화자가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 자연스럽게 발화되는데, 간혹 동년배일 때도 가능하다. 제주방언 ‘으따가라’는 주로 장년층 이상에서 빈번하게 발화된다.

(1가a)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우는 행동을 보이므로, 그 행동을 중지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발화이다. 후행 발화는 ‘내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울 일은 아니다.’라는 나무람의 의미가 있다. 또한 ‘나도 너만큼 슬프지만 꼭 참고 있다. 나도 정말 서럽다.’는 등 화자는 감정의 동요를 감추면서 겉으로는 청자를 나무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으따가라’는 나무람, 빈정거림, 반어, 또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강한 공감과 동조를 표현할 때 등의 담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나a)에서 발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1가b)에서 발화자는 ‘네 감정대로 발설하라.’는 비난의 감정이 드러난다. (1나b)는 발화자 자신의 격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즉 상대방이 발화자의 감정을 위로해 주거나 보듬어 주지는 못할망정 울고 싶은 마음을 더욱 부채질하는 발화에 대한 반응이다. 여기서 ‘으따가라’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조금 비난하고 싶을 때 등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담화 의미가 있다.

제주방언 ‘으따가라’의 담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다.

- (2) (가a). 우리 두린 때 먹을 거 엇이 살아난 거 곶으민 이해 못헐 거라게.
(우리 어린 때 먹을 거 없이 살았던 것을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a). 으따가라, 이녁네만 고생해났어? 우리도 메훈가지주.
(어따, 자기들만 고생했었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b). 경해도 지넨 성안 사난 우리영 트날 거라.

(그래도 너희들은 시내에 사니 우리와 다를 거야.)

(나b). 으따가라, 옛날 말 그만 줄읍서. 경헛젠 달라지는 거 잇이카마썸.

(어따, 옛말 그만하세요. 그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2)에서 감탄사 ‘으따가라’가 발화된 것은 화자와 청자 간에 유대감이 강하고 권세가 약한 경우에 가능하다. 화자는 청자의 이야기를 중지하고 싶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즉 화자와 청자 사이의 내용이 구정보일 때 가능한 발화이다. 이때 ‘으따가라’는 의도적인 대화중지, 대화거부의 담화 의미로 쓰였다.

(2가a)에서 화자는 자신들의 과거 삶이 고단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전달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청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2나a)와 같이 화자는 상대방의 발화를 부정하고 있다. 즉 상대방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화자도 나름대로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발화에 대하여 화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감탄사 ‘으따가라’는 거부와 중지, 나무람의 담화 의미로 쓰였다.

(2가b)에서 화자는 청자의 거부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2나b)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서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듣기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와 상대방 간에 과거 이야기는 구정보이므로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화자는 ‘으따가라’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 보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2)에서 화자와 청자는 동시대를 살았으며, 서로 간에 고생의 정도를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그만해도 좋다는 정보의 공유가 있는 것이다. 감탄사 ‘으따가라’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대화중지, 약한 부정, 약한 동감 정도의 담화 의미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에서 감정 표현의 감탄사 ‘으따가라’가 쓰일 때는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는 청자가 경험한 사건이 요란스러운 행동을 보일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청자의 행동이 좀 과장되었다고 여길 때 등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1)에 쓰인 ‘으따가라’의 담화 의미는 대체로 나무람, 거부, 부정 등으로 나타나는 데 (2)에서는 대화중지, 약한 부정 정도의 담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화맥의 차이로 볼 수 있다.

(3) (가a). 저 집이 뭇 일 신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 (나a). 나가 알 말이짜?
(내가 알 말입니까?)
- (가b). 으따가라, 굴아주민 어떻허여?
(어따, 말해주면 어떠니?)
- (나b). 으따가라, 계건 직접 알아봅서.
(어따, 그러면 직접 알아보세요.)

(3가a)에서 화자는 자신의 궁금한 점을 상대방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한다. 반면 (3나a)와 같이 화자 역시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모른다고 응답한다. 이때 화자는 신정보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하는데, 상대방에게도 신정보이므로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화자는 청자의 정보부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다고 믿는 상황에서 (3가b)와 같이 발화한다. 여기서 감탄사 ‘으따가라’는 청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말 그럴 수 있니?’라는 강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감탄사 ‘으따가라’의 후행 발화를 보더라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사실을 나에게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다. (3나b)는 상대방의 비난이나 책망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화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데, 자신의 말을 이해해 주지는 않고 나무란다고 여길 때 화자는 으따가라를 발화함으로써 ‘내가 정말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화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청자가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준다. (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는 나무람, 비난, 책망, 강한 불만, 대화중지, 대화거부, 부정, 약한 부정, 약한 동감 등의 담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의미들은 후행 발화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결국 ‘으따가라’는 감정 표현의 감탄사인데,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화 상황에서 대화자 간의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는데 적합한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감탄사 ‘으따가라’와 ‘어따’의 담화 의미를 비교해 보겠다.

- (4). 으따/으-따/으따-/으따따, 무사 경 약 올렸우과?
(어따/어-따/어따-/어따따, 왜 그렇게 약을 올리십니까?)

(4)에서 ‘으따’를 짧고 강하게 발화할 때, ‘으’와 ‘따’ 사이를 길게 발화할 때, ‘으따’를 길게 발화할 때, 으따’를 강조하는 ‘으따따’ 등의 형태들은 발화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된다. 한편 ‘으따가라’가 쓰이는 데도 ‘으따’ 형(으-따, 으따-, 으따따 등)이 발화되는 것은 ‘으따가라’를 발화했을 때 화자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감탄사 ‘으따’를 발화할 때는 상대방의 언행을 강하게 부정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강한 거부감이 드러난다.

감탄사 ‘으따’는 상대방의 문제제기에 말문이 막힐 때,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등 어처구니가 없다는 의미로 발화된다. 화자도 ‘상대방의 말에 반대한다.’는 반박을 하고 싶으나 자신의 감정을 짧게 드러냄으로써 분노의 정도를 표현한다. 또한 감탄사 ‘으따가라’는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대해 나무람, 비난, 거부, 부정 등의 담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에서 감탄사 ‘으따가라’는 대부분 짧고 강하게 발음되는데, (4)에서 ‘으따’는 화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다. 따라서 감탄사 ‘으따’와 ‘으따가라’의 형태가 모두 발화되는 것은 화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의미 차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감탄사 ‘으따’에 비해 ‘으따가라’를 발화할 때 화자의 감정이 좀더 강하게 전달된다고 본다.

제주방언 ‘으따가라’와 ‘으따’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표출하므로(긍정, 부정 등)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호응한다. 또한 화자가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 발화 빈도가 높은 편이며, 화자가 청자보다 연하자일 때도 자연스럽게 발화된다.

2. 감탄사 ‘메께라’ 형의 담화 기능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인 ‘메께라’²⁾는 청자의 행동이 엉뚱하고,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때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의미로 쓰인다.

- (5) (가a). 경 돈 하영 벌영 누게 주쿠과?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 (나a). 메께라, 느 무신 말 험디?
(메께라, 너는 무슨 말을 하느냐?)
- (가b). 계진 흐꿈 쉬멍 일헙서.
(그러면 좀 쉬면서 일하세요.)
- (나b). 메께라, 놀민 누게가 밥 멕여 주느냐?
(메께라, 놀면 누가 밥 먹여 주니?)

(5가a)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부지런함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일을 적당히 하고 쉬었으면

2) 제주방언에서 감정 표현의 감탄사로 ‘메께라’ 이외에 ‘메께, 메시께라, 머시께라, 머식께, 미식께라’ 등이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이 형태들은 통사적으로 쓰이는 환경에 변별력이 없는 편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메께라’를 대표형으로 정하였다. 제주방언 ‘메께라’는 표준어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단어가 명료하지 않아서 문장에서 담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5나a)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발화가 생똥맛다는 의미로 ‘메꺼라’를 사용하고 있다. 즉 화자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화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는 뜻으로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때 ‘메꺼라’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강한 부정, 거부, 책망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5가b)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강한 부정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적당히 일을 하라는 권유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화자는 (5나b)와 같이 강한 부정의 의미로 ‘메꺼라’를 발화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 터무니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발화에는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이때 ‘메꺼라’에는 상대방의 상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한다는 나무람, 비난, 책망, 못마땅함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감탄사 ‘메꺼라’의 쓰임을 좀 더 살펴보겠다.

- (6) (가a). 두불 장계가는 거 승이 안 돼주양?
(두 번 장가가는 거 흥이 안 되지요?)
(나a). 메꺼라, 요새도 그런 말 끝느냐?
(메꺼라, 요새도 그런 말 하느냐?)
(가b). 동네 사름덜이 머엔 끝는 거 닥아 베난마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같아 보여서요.)
(나b). 메꺼라, 놈이 말 듣지 말라.
(메꺼라, 남의 말 듣지 말라.)

(6가a)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남자의 재혼이 괜찮은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서 (6나a)에서 발화자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화자의 염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메꺼라’를 발화하고 있다. 감탄사 ‘메꺼라’에는 화자의 발화에 대해 강한 부정, (쓸데없는 소리라는) 책망, (화자의 생각에) 동의 등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발화자는 ‘흥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화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강한 강조의 의미로도 쓰인다.

반면 (6가b)에서 화자는 청자의 강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변의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6나b)에서 발화자는 ‘메꺼라’를 사용하여 화자의 걱정을 단호하게 무시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있다. 여기서 발화자는 화자에게 왜 그런 말을 귀담아 듣는지 나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6)에서 ‘메꺼라’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서 청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즉 ‘메꺼라’는 부정, 책망, 강조, 단정 등의 담

화 의미를 지니고 있다.

(5)-(6)에서 감정 표현 감탄사 ‘메께라’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감탄사이므로 후행하는 문장이 의문문과 명령문일 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 자연스럽게 쓰인다.

3. 감탄사 ‘메’ 형의 담화 기능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메’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문하거나 부정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때 ‘메’를 강하게 발음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7) (가a). 그 사람은 이력이 잘 안 뉘우다양.

(그 사람은 이력이 잘 안 되네요.)

(나a). 메, 무사 경 곱았어?

(메, 왜 그렇게 말하니?)

(가b). 막 고생허는 거 곱으난마썸.

(아주 고생하는 거 같아서요.)

(나b). 메, 누가 뭘 잘 몰랐저.

(메, 네가 뭘 잘 모르고 있네.)

(7가a)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에 대해 (7나a)에서 발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부정하는 의미로 ‘메’를 발화하고 있다. 이때 ‘메’는 ‘그 사람은 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 또는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상대방에게 들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이런 상태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신정보인 양 전달함으로써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다. 이때 ‘메’는 강한 부정, 거부, 책망 등의 담화 의미로 쓰인다.

(7가b)에서 발화자는 상대방의 강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7나b)에서는 역시나 발화자는 상대방의 발화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즉 ‘너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하느냐.’라며 책망하고 있다. 여기서 ‘메’ 또한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화자의 강한 부정, 거부, 비난의 담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8) (가a). 부모님 제사 합제허카양?
(부모님 제사 합제할까요?)
(나a). 메, 제사허는 거 경 어려우냐?
(메, 제사하는 것이 그리 어렵니?)
(가b). 합제는 유행 아니짜게.
(합제는 유행 아닌가요?)
(나b). 메, 경해도 부모 제사 합제허민 뉘느냐게.
(메, 그래도 부모 제사는 합제하면 되니.)

(8가a)에서 화자는 부모님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화자는 ‘메’를 사용하여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즉 (8나b)에서 발화자는 상대방의 발화가 못마땅하고, 상식 밖이라 실망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때 감탄사 ‘메’를 발화함으로써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8가b)에서 화자는 다시 용감하게 합제의 정당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받아서 발화자는 (8나b)와 같이 한번 더 강하게 합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감탄사 ‘메’에는 발화자의 강한 의지, 단정, 거부, 비난, 책망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메’는 강하게 발음됨으로써 발화자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제문에 대한 화자의 강한 부정의 의미도 있다. 이때 감탄사 ‘메’는 상대방의 말(요청, 부탁 등)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감탄사 ‘메’는 상대방의 말이 자신의 기대치를 아주 벗어나거나, 그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등 상대방의 말을 강하게 부정할 때 발화된다. 따라서 ‘메’는 강한 부정, 요구 거절 등의 담화 의미로 쓰인다.

(7나a)-(8나a)에 쓰인 감정 표현 감탄사 ‘메’ 대신에 ‘메께라’를 대체하여 담화 의미를 좀더 살펴보겠다.

- (9) 가. 메께라, 무사 경 꼴았어?
나. 메께라, 제사허는 거 경 어려우냐?

(9가)에서 감탄사 ‘메께라’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화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부, 거절의 담화 의미로 쓰였으며, 이는 감탄사 ‘메’의 담화 의미와 유사하다. (9나)에서 ‘메께라’는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절의 의미와 그 행동을 책망하는 담화 의미도 들어

있다. 또한 상대방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 화자가 혼잣말로 ‘메꺼라’와 ‘메’를 발화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다.

감정 표현 감탄사 ‘메꺼라’에 비해 ‘메’를 발화할 때는 화자의 감정이 좀 더 강하게 표출된다. 결국 감탄사 ‘메꺼라’와 ‘메’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하여 부정하는 담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제주방언 감정 표현 ‘메꺼라’와 ‘메’는 담화 의미가 유사하지만 화맥에 따라 의미가 미미하게 나타난다. 제주방언 ‘메꺼라’와 ‘메’는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호응하고, 화자는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 또는 동년배일 때 자연스럽게 발화된다.

4. 감탄사 ‘츠마가라’ 형의 담화 기능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츠마가라’는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언행이 기대 이하일 때, 엉뚱할 때 등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제주방언 ‘츠마’가 부사로 쓰일 경우 중세국어와 동일한 형태이고, 이때 표준어는 ‘차마’에 해당된다.

- (10) (가a). 츠마가라, 어른안티 경 버릇엇이 대들엇이나?
(츠마가라, 어른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대들었느냐?)
(나a). 나가 뭐 잘못도 안했인디, 막 욱허난마쌌.
(내가 뭐 잘못도 안했는데 아주 욱하니까요.)
(가b). 츠마가라, 어떻허난 말대답이고?
(츠마가라, 어째서 말대답이냐?)
(나b). 생각해 보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가a)에서 화자는 청자의 행동이 아주 못마땅함을 강조하면서 ‘츠마가라’를 발화하고 있다. 이때 ‘츠마가라’는 청자의 행동이 무례하고, 예상 밖임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의미로 쓰였다. 즉 화자는 청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강하게 전달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10나a)에서 발화자는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변명하고 있다. 이에

3)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츠마가라’ 형에는 ‘츠마’ ‘츠마도가라’ 등이 있으며, 실현되는 환경에 변별력이 없다. 이 글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츠마가라’를 대표형으로 정하였다. 제주방언 ‘츠마가라’는 표준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어서 표준어로 해석할 때는 제주방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해 (10가b)에서 화자는 그래도 청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재차 강조하고, 청자의 변명이 예의 없음을 확인해 준다. 여기서 ‘츠마가라’는 청자의 발화가 가치 없다는 뜻으로 대화중지, 거부, 책망 등의 담화 의미로 쓰였다.

(10)에서 감정 표현 감탄사 ‘츠마가라’는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비난, 나무람, 책망, 단정 등의 담화 의미로 쓰인다. 즉 ‘츠마가라’를 발화할 때는 화자의 기대치를 아주 벗어난 행동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허망하고 당황스러운 감정이 복합적으로 표출된다. 또한 청자를 믿었는데 화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언행이 나타날 때도 가능한 감정 표현이다.

감정 표현 감탄사 ‘츠마가라’의 쓰임을 좀더 살펴보겠다.

(11) (가a). 나도 자식인데 친정 재산 물려줍서.

(나도 자식인데 친정 재산 물려주세요.)

(나a). 츠마가라, 는 어땡허민 그런 말 굴아지느냐?

(츠마가라,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가b). 무사, 딸은 자식 아니우짜?

(왜, 딸은 자식 아닙니까?)

(나b). 츠마가라, 그런 말허젠 허난 입 부치럽지 안허냐?

(츠마가라, 그런 말하려고 하니 입이 부끄럽지 않니?)

(11가a)에서 화자는 친정에서 재산을 상속받고 싶은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모는 화자의 요구가 엉뚱하고,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11나a)와 같이 ‘츠마가라’를 발화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화자의 요구가 전혀 예상 밖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츠마가라’에는 화자의 발화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11가b)에서 화자는 부모의 비난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발화자는 한번 더 강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시로 (11나b)에서 ‘츠마가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츠마가라’는 발화자가 상대방의 당당한 태도를 강하게 나무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말라는 단정, 대화중지, 대화거부의 담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0)-(11)에서 감정 표현 감탄사 ‘츠마가라’에는 화자의 강한 부정, 거부, 책망, 단정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츠마가라’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방의 언행이 예의에 어긋나고, 비난 받을 만한 대상일 때 발화된다. 감탄사 ‘츠마가라’는 의문문과 명령문에 호응하며, 화자가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 보편적으로 발화된다.

Ⅲ. 결 론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 메께라, 메, 츠마가라’ 등은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므로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호응하는 통사 특성이 있다. 이 감탄사들은 장년층 이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화자가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 발화된다. 간혹 동년배 간에도 사용하는데 이때는 화자와 청자 간에 친밀감이 높아야 한다. 다만 ‘으따가라’는 화자가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도 쓰인다. 한편 화자와 청자 사이에 유대 관계가 없을 때는 화자의 요구나 명령, 제안 등이 청자의 입장을 불편하게 할 때에도 발화된다.

감정 표현 감탄사는 1차적으로는 단순히 화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감탄사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화자의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어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담화 의미가 있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는 나무람, 비난, 책망, 대화중지, 대화거부, 부정 등의 담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의미들은 후행 발화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으따가라’는 감정 표현의 감탄사인데,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화 상황에서 대화자 간의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는 담화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으따가라’가 쓰이는 데도 ‘으따’ 형(으-따, 으따-, 으따따 등)이 발화되는 것은 ‘으따가라’를 발화했을 때 화자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 선택된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인 ‘메께라’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하여 강한 부정, 거부, 책망의 담화 의미로 쓰였다. 다시 말하면 발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화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한다는 나무람, 비난, 책망, 못마땅함, 단정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메’는 강하게 발음됨으로써 발화자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의 말이 자신의 기대치를 아주 벗어나거나 그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등 상대방의 말을 강하게 부정할 때 발화된다. 그래서 ‘메’는 강한 부정, 요구 거절의 담화 의미로 쓰인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메께라’와 ‘메’는 담화 의미가 유사하지만 화맥에 따라 의미 차가 다소 나타난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츠마가라’에는 화자의 강한 부정, 거부, 책망, 단정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츠마가라’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방의 언행이 예의에 어긋나고, 비난 받을 상황일 때 발화된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 ‘으따가라, 메께라, 메, 츠마가라’ 등은 단어 자체의 어휘적 의미보다는 화맥에 따라 다양한 담화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즉 감정 표현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음됨으로써 감정 표현의 담화 기능을 나타낸다. 또한 이 감탄사들은 문장의 앞머리에 위치하여 후행하는 문

장의 의미를 강하게 부정하거나 책망하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는 상대방의 행동을 나무랄 때, 화자의 맘에 들지 않을 때(흡족하지 않은 상태) 등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는 등의 담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K C I

참고문헌

- 남기심 · 고영근 (198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문순덕 · 김원보 (2017). 제주방언 격조사의 담화기능. **언어학연구**, 22(2), 55-70.
- 문순덕 · 김원보 (2013). 제주방언 ‘처레’와 ‘생’의 담화 의미. **언어학연구**, 18(1), 75-88.
- 문순덕 · 김원보 (2012).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 연구. **언어학연구**, 17(1), 27-42
- 문순덕 (2005). 제주방언의 간투 표현. **한글** 269. 한글학회, 161-188.
- 서정수 (2006). **국어문법**. 한세본.
- 서태룡 (1999).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부. **동악어문학**, 35, 21-50.
- 송상조 엮고 지음 (2007).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 안주호 (2012).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 61, 91-116.
- 오승신 (1994). 감탄사의 본질. **이화어문논집**, 13, 71-88.
- 이익환 · 권경원 역 (1993). **화용론**. 한신문화사.
- 이현희 (2015). 구어의 특성을 고려한 감탄사의 범주 전형성 연구. **우리말연구**, 40, 33-63.
- 전영옥 (2012).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분류연구. **한말연구**, 31, 229-260.
- 제주문화예술회사 편 (2009). **제주어사전**(개정증보). 제주특별자치도.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정음사.
- Brinton, L. J.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Topics in English Linguistics*.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Fraser, B. (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s of Pragmatics*, 31, 931-952.
- Jucker, A. and Ziv, Y. (1998).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s and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Changyong. (2016). A Discourse Marker keymey in the Language of Jeju: Its pragmatically-controlled functions and use.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21(1), 149-164.

원고접수일: 2018. 10. 18

수정접수일: 2018. 11. 21

게재확정일: 2018. 11. 28

The Discourse Function of Emotional Exclamations in the Jeju Dialect

Moon Soondeok

(Jeju Research Institute)

Kim Wonbo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e Korean grammar, it is common to classify exclamations as either an emotional or a wilful exclamation. Since an exclamation is spontaneously spoken in the colloquial language, its meaning becomes clear when it is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course meaning rather than the grammatical meaning. Therefore, since the function of exclamations expressing emotion gets clearer in the utterance situation, a discourse approach to their meaning can help us interpret the meaning of an emotional exclamation more accurately.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iscourse meanings of the emotional exclamations in the Jeju dialect such as ‘ottagala(옳따가라: ㅅ for ㅁ in the Jeju dialect)’, ‘mekkela(메께라)’, ‘chomagara(츄마가라)’, and ‘me(메)’. The exclamation ‘ottagala’ expressing emotions in the Jeju dialect indicates the discourse meaning of scolding, blame, reproof, interruption or refusal of conversation, or denial and the trailing speech decides one of these meanings. Jeju dialect emotional exclamations such as ‘mekkela’ and ‘mesikela(메시께라)’ convey the discourse meaning of ‘strong denial, rejection, reproof, scolding, criticism, dissatisfaction and assertiveness’. The exclamation ‘chomagala’ in the Jeju dialect shows the discourse meaning of a speaker’s strong denial, rejection, reproof and determination. The Jeju dialect emotional expression ‘me’ has the discourse meaning of strong denial and demand rejection. Therefore, the emotional expressions ‘ottagala’, ‘mekkela’, ‘chomagara’, and ‘me’ in the Jeju dialect are used to imply the discourse meaning that condemns a listener’s words or actions in a speaker's position, especially when a speaker blames or does not like a listener’s act.

Key words : Jeju dialect, Emotional expressions, Exclamation, ottagala, Mekkela, Mesikela, Chomagara, Me, Discourse meaning